백두산

36호 - 주체91(2002)년 5월 20일 월요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공개놀음≫을 저지파탄시키자

전체국민들이여!

지금 이 땅에서는 친미극우분단수구세력의 악랄한 반북대결소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월남참전전우회, 공수특전동지회, 육해공군해병대, 해병연합회 등 악질적인 반공반북단체들은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이른바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놀음을 벌이고 있다.

이자들은 지난 2월 28일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70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을 확정, 발표한데 대해 반공애국인사들을 욕보이려는 행위로 걸고 들며 민족반역이니 뭐니 하며 모독적인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친미친북세력명단을 작성공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회니 안보회니 하는 반공반북광란극을 연이어 벌여놓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은 공산화통일전략, 금강산관광은 북한 군자금대주기라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의 양민학살만행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애국적 민중을 불법용공세력으로 몰며 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각계 민중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반미자주통일지향을 어떻게하나 차단해보려는 용납못할 반민족반통일행위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자들의 책동에 치솟는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우리 민중은 외세의 침략과 그와 결탁한 사대매국노들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와 미제의 발굽밑에서 근 한세기동안이나 식민지노예의 설움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누려온 친일역적들이 8.15직후 미제의 비호로 처단되지 못하고 이 땅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에 잠식하여 요직을 차지해왔다. 오늘에 와서는 이회창역도와 같이 그 후예들까지 머리를 쳐들고 대통령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친일매국노들을 심판하고 역사의 엄정한 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요구이며 민족사의 명령이다. 그런데도 반북대결분자들은 친일매국노들을 반공애국인사로 내세우며 친일파명단공개를 반역행위로까지 매도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며 이자들이야말로 단호히 제거되어야 할 민족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은 이 땅을 불법강점한 침략자, 약탈자, 살인자이며 민족분열과 국토분단의 원흉이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 민중은 50여년간이나 내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6.25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양민학살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범죄행위였다. 쏘아 죽이고 찢어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해 죽이며 중세기의 야만적 수법으로 수백만의 무고한 양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한 미군야수들의 살육만행은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하고 보복해야 할 대죄악이다.

특히 악랄한 대북압살정책으로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고 가공할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현부시행정부의 책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이다.

때문에 우리 민중은 결사의 각오로 반미반전투쟁의 봉화를 끊임없이 지펴올리면서 미제의 양민학살진상규명과 미제침략군철수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친미사대행위에 환장이 된 극우분단수구세력은 우리 국민의 이러한 애국적 반미진출을 불법용공으로 몰며 정면도전해 나서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용납못할 반민족배역행위이다.

어제날의 친일역적들이 8.15후 친미역적으로 자리바꿈했다. 오늘에 와서 친일파와 친미파는 한 족속이며 다같은 반민족역적들이다. 이자들의 책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을 가로막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지속과 나라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전체국민들이여!

반민족역적들의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놀음을 짓부셔버리는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응당한 요구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오늘 6.15공동선언의 깃발따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앞에 감히 도전해 나선 친미극우분단세력의 반북대결소동은 죽어가는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

전국민은 친미친일반공반북대결분자들의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공개놀음을 저지파탄시키자.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온갖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들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리자.

이회창과 같은 친미친일극우반통일분자가 집권하면 이 땅에 핵전쟁의 죄악만을 몰아오게 된다. 각계각층 국민대중은 이회창을 위시한 친미친일반통일분자들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매장해버리자.

반미반일반전투쟁의 횃불, 미제침략군철수투쟁의 봉화를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2002)년 5월 17일
서울

2 종합
- 조평통, ≪반미친북세력명단≫ 작성 놀음을 규탄
- 일본의 노골적인 재침기도
- 종교상황 운운하는 내정간섭
- 광주항쟁용사들의 염원은 실현되어야 한다
- 썩은 대쪽은 제때에 뿌리뽑아야 한다
- 누구에게나 앙심 품은 이회창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6)

6 세기와 더불어
- 8장 5절 마촌작전(3)

8 칭송
- 위대한 투사 **김정일**
- 걸그림 ≪1860년대의 파리 전경≫

9 노동신문 정론
- 미래를 사랑하라(3)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주체를 세우시다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5.18 광주의 염원은 반드시 실현돼야
- 항쟁의 횃불을 들었다

13 투쟁보도
- 시민의 힘과 지혜로, 미국 유죄
- 현장인터뷰 : 레노 하인즈
- 현장인터뷰 : 시민법정 증인 김효석
- 현장인터뷰 : 시민법정 시민검사 손미희
- 현장인터뷰 : 시민법정 변호인 장경욱

15 운동강좌
-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1)

조평통,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놀음을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반공화국대결분자들의 ≪반미친북세력명단≫놀음을 규탄하여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악질적인 반공화국대결분자들이 ≪친북좌익세력명단공개추진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 놓고 날로 높아 가는 자주통일지향을 막아 보려고 날뛰고 있다.

이자들은 지난 2월 28일 남조선의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70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을 공개한데 대응하여 ≪반미친북세력명단≫을 작성공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 가고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에 의한 자주통일기운을 가로 막고 북남대결을 고취해 보려는 친미반통일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오늘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지난날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온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민족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조국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염원이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을 말살하고 있는 미제를 반대하고 동족인 우리 북반부동포들과 힘을 합쳐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이 거세찬 자주통일의 흐름속에서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은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처단되였어야 할 친일역적들이 미제의 비호밑에 오늘까지 살아서 민족정기를 좀먹고 민족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는 염원으로부터 추악한 친일역적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천백번 정당한 일로서 온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할 애국적소행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반미친북세력명단≫이라는것을 작성공개하려 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분렬을 연장시키려는 친미친일매국역적들의 얼빠진 망동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의 악질반공분자들이 벌리는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놀음을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적진출을 가로 막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연장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용납못할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지난 날 일제에게 빌부어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일삼으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역적들과 오늘 미제에 아부아첨하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친미반통일분자들은 다 같은 사대매국노, 만고역적들이다.

이자들의 책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장애로 된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일반동들과 극우보수세력의 부추김밑에 력사의 반동들이 감행하고 있는 ≪반미친북세력명단≫작성공개놀음을 저지파탄시키고 친미친일반통일세력을 가차없이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굳게 뭉쳐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반미반일애국투쟁에 계속 과감히 떨쳐 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2002/05/18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노골적인 재침기도

최근 ≪유사시관련법안≫채택을 위한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일본방위청 장관 나까따니가 어떤 사태를 ≪무력공격사태≫로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태가 대상으로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일본집권자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무력행사를 할수 있다고 떠들었다.

18일부 ≪로동신문≫은 ≪무력공격사태≫의 정의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본당국자들이 ≪모든 사태가 대상으로 된다≫고 떠들어 대는 목적은 그 어떤 행동이 일본을 ≪위협≫한다는 언턱을 대고 해외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뛰여 들기 위해서이라고 까밝혔다.

신문은 미국에서의 ≪9.11사건≫을 계기로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구실로 해외에 ≪자위대≫함선들을 출동시키는 전례를 만들어 놓은데서 재미를 본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을 위한 법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반테로전쟁≫에 합세하여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자는것이 ≪유사시관련법안≫채택의 진짜목적이다.

≪유사시관련법안≫채택이 인적, 물적자원을 침략과 전쟁에 총 동원하기 위한 ≪전시총동원법≫조작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유사시관련법안≫을 우리를 걸고 채택하려 하는것이다. 일본방위청 장관이 ≪괴선박≫ 등도 ≪무력공격사태≫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무력행사를 주장한 리면에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공격기도가 깔려 있다.

2002/05/18 조선중앙통신

종교상황 운운하는 내정간섭

최근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북조선에서는 종교적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었다.

이것은 조미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고 대결만을 추구하는 미국내불순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반영한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정치적내정간섭으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우리의 종교인들은 교회당과 가정례배처소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 나라에서의 종교실태를 심히 외곡날조하여 황당한 여론을 퍼뜨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내부를 어째보려는 비렬한 술책으로서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진정 종교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종교상황에 대하여 론하기전에 먼저 미국의 한심한 종교실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에서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이 이단시되고 많은 종교인들이 당국의 항시적인 감시와 박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은 우리의 모든 종교시설들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수많은 우리 교인들의 목숨을 앗아 갔다. 미국이 저들의 이러한 범죄적인 종교말살행위에 대하여 사죄할 대신에 오히려 제편에서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이를 용납할수 있겠는가.

미국의 불순세력들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종교문제에 대하여 떠들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2002/05/18 조선중앙통신 논평

광주항쟁용사들의 염원은 실현되어야 한다

오늘은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스물두해가 되는 날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은 군사파쑈분자들이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지향에 5.17군사파쑈폭거로 도전해 나선데 격노하여 대중적봉기에 궐기하여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였다. 봉기는 류혈탄압만행으로 좌절되였으며 이 기간에 5, 0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이 학살 당하고 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빚어 졌다.

18일부 ≪로동신문≫은 광주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진압한 장본인인 미국은 아직도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의연히 남조선에 대한 강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군사적존재는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과 민족의 통일에 백해무익하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인민들이 입은 피해는 그 얼마인지 도저히 계산할수 없다.

미국은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 리행을 가로 막아 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희생의 대가로 자기의 리익을 추구하는 흉악한 침략자이고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정책이 종식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조국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준다.

광주의 영령들이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성전에로 부른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벌려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징벌하는것으로써 광주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 낼것이다.

2002/05/18 조선중앙통신

썩은 대쪽은 제때에 뿌리뽑아야 한다

지금 항간에서는 이회창이 격에 맞지 않게 자화자찬하는 꼴을 볼때면 꼭 창녀가 정절을 떠드는 걸 보는 것 같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 시간 끝으로 ≪썩은 대쪽은 제때에 뿌리뽑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이회창은 그 무슨 인터뷰라는데서 자기의 치적자랑을 하며 내가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높은 직위를 많이 했는데 그건 풍부한 행정경험이라느니 그러나 나의 사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똑같이 생활했다느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회창이 국민을 속이고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뻔뻔스러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의 법관시절을 보면 군부파쑈독재의 하수인이 되어 애국학생들과 민주언론,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된 죄악에 찬 시절이였습니다.

이회창이 박정희군사독재시기 ≪민족일보≫사를 강제폐간시키고 조용수사장을 처형케한 사실과 전두환군부독재시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도 이회창이 한 짓이란 부정비리범죄입니다.

안기부자금횡령사건, 병역비리, 세풍사건, 장남 이정연의 주가조작사기행위, 호화빌라사건, ****문제 등 이회창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는 헤아릴 수 없고 들추면 들출수록 구린내만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호화주택비리사건으로 민중들속에서 반이회창감정이 더욱 높아지자 앞에서는 사죄하는 척하고 돌아앉아서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무려 6억5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구입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그를 제일 먼저 시비중상하면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반통일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선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입니다.

올 들어서만 봐도 이회창은 바다 건너 미국과 일본을 찾아가 상전들의 대북강경정책에 비유를 맞추면서 주한미군영구주둔과 한미일공조,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론을 운운하며 친미친일사대매국노로써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공동보도문까지 걸고들면서 공동보도문에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비방중상해 나섰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노, 반민주반통일역적이며 역도가 떠들은 풍부한 행정경험이란 결국 썩은 대쪽으로써의 죄만 쌓은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감히 대권을 목적으로 유세장을 돌아치면서 우리 민중을 우롱하고 있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에게 해만 가져다주는 이런 썩은 대쪽은 제때에 뽑아버려야 합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완강히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각 시민, 대학총학생회들은 이미 반이회창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에 토대해서 이회창의 죄악을 폭로단죄하는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 인터넷 공유하기, 후보자 바로알기, 사이버시위, 노래패활동, 거리선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대학가와 공단가, 도시와 농어촌 등 경향각지에서 반이회창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생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각계 민중속에서 이회창바로보기운동을 적극 벌이는 것과 함께 대선에 적극 참가해서 16대 대선장을 이회창을 징벌하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이회창 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이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반전반미반부시, 조선일보반대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악의 축≫망발과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돌리면서 대북강경정책과 침략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졸개인 이회창을 대통령권좌에 올려앉히고 이 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회창과 공생하면서 미국의 반북반통일책동에 적극 추종하고 있는 부시의 대변지 극우반통일분자들의 매문지입니다. 따라서 반이회창투쟁과 반미반부시, 조선일보반대투쟁은 다같이 계속 벌여나가야 할 공동의 투쟁과제로 됩니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철폐, ≪F-15K≫기 구매반대, 미국상품불매운동 등 다양한 반미투쟁들을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입사거부, 조선일보구독중지, 조선일보**운동, 조선일보원고투고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선일보반대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반미반통일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림으로써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고 민족반역자, 썩은 대쪽 이회창을 기어이 역사의 심판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7일

누구에게나 앙심을 품고 있는 이회창

지금 이회창은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되어 보려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회유기만하는 한편 비위에 거슬리는 여야정치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 일삼아 오는 민족반역자 이회창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 이 땅에는 전대미문의 친미파쑈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며 우리 민중은 물론 여야정치인들 모두가 화를 입게 된다.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의 권세욕을 채우며 부귀영달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회창이다.

하기에 그는 대통령감투를 쓰기 위해 선참으로 미국과 일본을 행각하여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갖은 추태를 부렸다.

미일상전에게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한나라당의 뜻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앞으로 ≪한미간의 공조≫와 ≪돈독한 관계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아양을 떨었다.

이것은 이회창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영원한 충견이 되겠다는 서약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회창이기에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들이나 비위에 거슬리는 인물들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며 ≪대권을 쥐기만 해봐라≫고 윽윽 벼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말했 듯이 이회창은 김대중, 김종필, 박근혜, 김영삼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중요인물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

두해전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개최를 명시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되자 이를 ≪총선용 신북풍사건≫으로 매도하면서 ≪북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 간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김대중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김대중의 북행길을 음으로 양으로 가로막아나선 이회창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는 전국민이 6.15공동선언발표로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환희와 기쁨에 넘쳐 있었지만 이회창은 ≪국민이 환상에 젖어 있다≫고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를 심히 모독하면서 뒷골방에 틀어박혀 화투놀이를 하며 악담을 늘어 놓았다.

이회창은 김대중이 미국이 바라는 반북대결로 나가지 않고 조국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수표를 하였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파탄시키기 위해 현정권의 대북관련 담당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작전을 펴 전 문화관광부장관이었던 박지원을 비리사건으로 몰아 떼게 했으며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을 평양축전에 걸어 교체케 하는 비열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속에서도 6.15공동선언이 이행단계에 들어서자 김대중을 걸고 ≪퍼주기≫니, ≪국민혈세탕진≫이니, ≪북의 군량미보장≫이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반통일책동을 악랄하게 벌여온 이회창은 국제법상 허용된 북의 민간선박의 제주해협통과에 대해서까지 ≪왜 나포하거나 사격을 가하지 않았는가≫고 행악질을 하였다.

오죽했으면 이회창의 측근들까지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전무후무한 파쑈독재시대를 맞을 것이고, 그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 남겠는가≫고 개탄하겠는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저지파탄시켜 휴짓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하여 온 이회창은 내각제문제로 신경을 쓰던 김종필을 끌어당겨 당세를 확장하고 대권야욕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써먹으려고 여러모로 획책하여 왔다.

그러나 김종필이 자기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게 되자 그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자민련소속 충북지사였던 이원종을 한나라당에 끌어 당기어 자민련을 와해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위까지 자행하였다.

분격한 김종필은 ≪권력에 환장한 저런 이회창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정면 대결해 나서자 이에 발끈한 이회창은 측근들 앞에서 노발대발 히스테리 광증을 일으켰다.

원래 이회창은 어젯날 동업자로 있었다 해도 그가 누구이건 자기의 비위와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리처럼 물어 뜯어 죽이는 미국식 체질을 타고난 친미 매국노, 동족학살의 악마이다.

이러한 기질을 타고난 회창은 한나라당 안에서 부총재까지 한 박근혜가 그의 행패를 더는 보기싫어 탈당하자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을 대신 오히려 그를 제거할 음모까지 드러내 놓았다.

자택에서 박근혜 끌어당기기공작이 잘 들어먹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이회창은 ≪어디 두고 보자≫고 하면서 살인마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회창이 요즘 언짢은 일이 생길 때마다 ≪두고 보자≫, ≪기회만 오면 제거할 대상들이 한둘이 아니야≫라는 소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애당초 애비때부터 친일을 하며 독립운동자들을 학살하였고 그 핏줄을 타고 친미의 가도를 질주하며 수많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자들을 처형, 학살해 온 이회창은 이미전에 제거되었어야 할 민족반역자, 통일의 암이다.

이회창과 같은 친미살인마가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 민중과 민족은 참변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국민은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 단호한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김상진 - 구국전선 제478호
주체91, 5월 11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6)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4)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 과업(2)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간석지개간사업과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 면적을 계속 늘여야 합니다. 간석지건설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다그쳐 1980년대 말까지 가도와 신미도, 정주와 청천강하구, 대동만을 비롯한 서해안일대에 2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에 새땅 찾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 20만 정보의 새땅을 더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집약화 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는 예비는 많습니다. 농작물의 육종사업을 잘하고 재배 방법을 개선하면 단위당 수확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생산은 곧 수송이며, 수송은 곧 생산입니다. 수송 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빨리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통 운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수송 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은 철도입니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쳐 가까운 몇해 안으로 철도전기화를 완성하며 전기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고 운수 수단과 장비들을 중량화, 고속도화, 자동화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철도를 더 많이 건설하며 통과 능력이 긴장한 구간들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새로 놓아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동차생산을 늘이고 자동차 길을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며 자동차수송조직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큰 짐배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내고 무역항들을 더 잘 꾸리며 령남리항, 단천항을 비롯한 새로운 항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관수송, 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을 발전시키는 것은 수송문제를 푸는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입니다. 정광 수송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송관들과 벨트 콤베아수송선, 삭도를 많이 건설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그것을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하여진 우리 나라의 현실은 대외 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 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수출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에 가서 한 해 수출액을 지금보다 4.2배 이상 높여야 할 것입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며 신용제일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며 제3세계 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수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납입 기일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1980년대에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생활 상 요구는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 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일용품과 식료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의 보장조건을 개선하여 소비품의 가지 수를 훨씬 늘이고 그 질을 앞선 나라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입니다. 세 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나라는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이 매우 큽니다. 고기배생산을 늘이고 고기배들을 만능화, 현대화하며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어, 양식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여러 가지 수산물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게 물고기 가공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고기생산지와 소비지들에 랭동시설과 랭장시설을 더 잘 갖추고 물고기가공사업을 널리 발전시켜 질좋은 물고기가공품을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원만히 풀며 큰 도시들을 모두 중앙 난방화하여 인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병원, 극장, 문화회관, 체육관, 휴양소, 료양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더많은 사회적 혜택이 차례지게 하며 전체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 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며, 로동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고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랑비현상을 반대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 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주체 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겠습니다.

3.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 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 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발전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 평화, 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 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 있던 북과 남 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였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 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 개 조선≫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두 개 조선≫을 조작하는 것을 대 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 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렬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 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뿐 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 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였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 책동과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 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렬주의자들의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 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쑈냐 하는 투쟁이였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여 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쑈적 ≪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 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기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 해 ≪10월 사건≫ 이후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 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악당들은 이른바 ≪한미련합군사령부≫의 지시 밑에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파쑈악당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내란음모죄≫요, ≪반공법 위반죄≫요 하는 여러 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 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 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 군사파쑈분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여넘고 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 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육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5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 독재자들을 비호하여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쑈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 군사파쑈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 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 살육만행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 자리에 올려 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 보살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심과 파쑈교형리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포악한 군사파쑈 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 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5. 마촌작전(3)

적들은 1933년 11월 17일에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방향에서 소왕청유격구를 포위 공격해왔다. 성난 이리떼처럼 눈에 살기가 잔뜩 어린 야마도의 후예들은 생나무라도 물어뜯을 험악한 기세로 유격구에 달려들었다. 그 오만하고 도도한 기세란 실로 왕청 땅을 열다섯번쯤 탕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대≪토벌≫은 엄혹한 동기조건에서 파상식으로 지독스럽게 감행되었다. 적의 비행대들은 군정지도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던 마촌과 이수구를 연거퍼 폭격하였다. 전술도 이만저만 악착스러워지지 않았다. 적들은 유격구로 쳐들어왔다가도 공격이 좌절되면 그날로 되돌아가는 종전의 피스톤식 ≪토벌≫로부터 공격이 실패해도 물러가지 않고 도달한 계선에 그대로 주저앉아 숙영하면서 한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차지한 지대를 공고히 해가는 ≪보보점령≫의 전술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점령지역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일체 부동산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불사르는 지독한 전술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일심동체가 되어 유격근거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하였다.

적아의 공방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곳은 유격구의 관문이 뾰족산과 마반산 쑥밭골 초소였다.

뾰족산과 마반산을 지키던 3중대와 반일자위대는 적을 20미터 안팎의 근거리에까지 접근시킨 다음 불의적인 집중사격과 작탄세례, 돌세례를 안겨 달려드는족족 모조리 소멸하였다. 적들은 파도식으로 악착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유격구의 전초진지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하였다. 마반산 계선의 방위자들은 높은 속도의 기동력으로 유격구를 우회공격하는 적 기병들을 대왕청하 굽인돌이에서 통쾌하게 섬멸하였다.

적의 대병력이 뾰족산과 마반산 진지에 연속 투입되자 우리는 전면적 방어전으로부터 유인기만 전술을 위주로 하는 신축자재한 기동한 적극적인 방어활동에 의한 소모전에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전투형식으로 적의 병력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동시에 주동에 서서 교전상대를 싸움에 부단히 끌어들임으로써 적에게 일분 일초의 안정도 허용하지 않는 특이하고 자유분방한 전법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전투형식을 제때에 택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어전술에만 매달렸더라면 유격대는 숫적 우세와 전투기술기재의 우세를 믿고 거머리처럼 악착스럽게 달라붙는 적의 공격앞에서 지리멸렬되었을 것이다.

다홍왜유격대 지하통로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전술적 조치에 따라 유격대원들은 반군사조직성원들과 함께 전초진지들에서 철수하여 유격구의 종심깊이로 적을 끊임없이 유인하면서 매복전, 저격전, 숙영지 습격전, 불무지 작탄전 등의 천변만화한 전법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통쾌하고 때렸다.

불무지 작탄전이라는 것은 코흘리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효율이 100프로였다. 우리는 진지를 옮길 대마다 다음 계선으로 철수하면서 불무지들에 작탄들을 파묻게 하였다. 적들은 우리의 방어진을 차지하기 바쁘게 불무지 앞에 모여들어 언 몸을 녹이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작탄이 폭발하여 적들을 요정냈다. 오백룡의 넷째 동생 오룡석도 자위대에 망라된 여자들과 함께 뾰족산 중앙보초소에서 이런 방법으로 적들을 살상하였다.

우리는 적들의 숙영지에 대한 야간습격전도 자주 조직하였다. 2~3명이나 4~5명 규모로 무어진 습격조를 적진속에 들여보내어 적국와해를 위한 삐라도 뿌리고 총도 몇 발씩 쏘고 오게 하였다. 적의 천막이나 불무지같은 데 총을 서너 방만 갈겨도 온 숙영지가 수라장이 되곤 하였다. 이런 야습은 하룻밤 사이에도 세 번, 네 번, 지어는 다섯 번씩 하는 때도 있었다. 적들은 온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떨거나 저희들끼리 헛총질을 해댔다. 우리의 연속적인 기습을 겁을 먹은 적들속에서는 전쟁정신병자까지 발생하였다.

어떤 적병들은 유격대원들이 뿌린 ≪일본병사들에게 격함!≫, ≪위만병사들에게 격함!≫과 같은 선전물들을 보고 우리측으로 투항해오기도 하였다.

포수들도 화승대를 들고 전장에 달려나왔다. 나이 많은 영감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사격술은 대단하였다. 적 장교들만 골라가며 쏘아눕히는 그 탄복할 만한 솜씨는 현대 저격수들의 솜씨와도 견줄 수 있었다. 부녀회원들은 주먹밥과 더운 물을 이고 연방 전호로 들락날락하였다. 열살 안팎의 아이들도 싸움터에 찾아와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면서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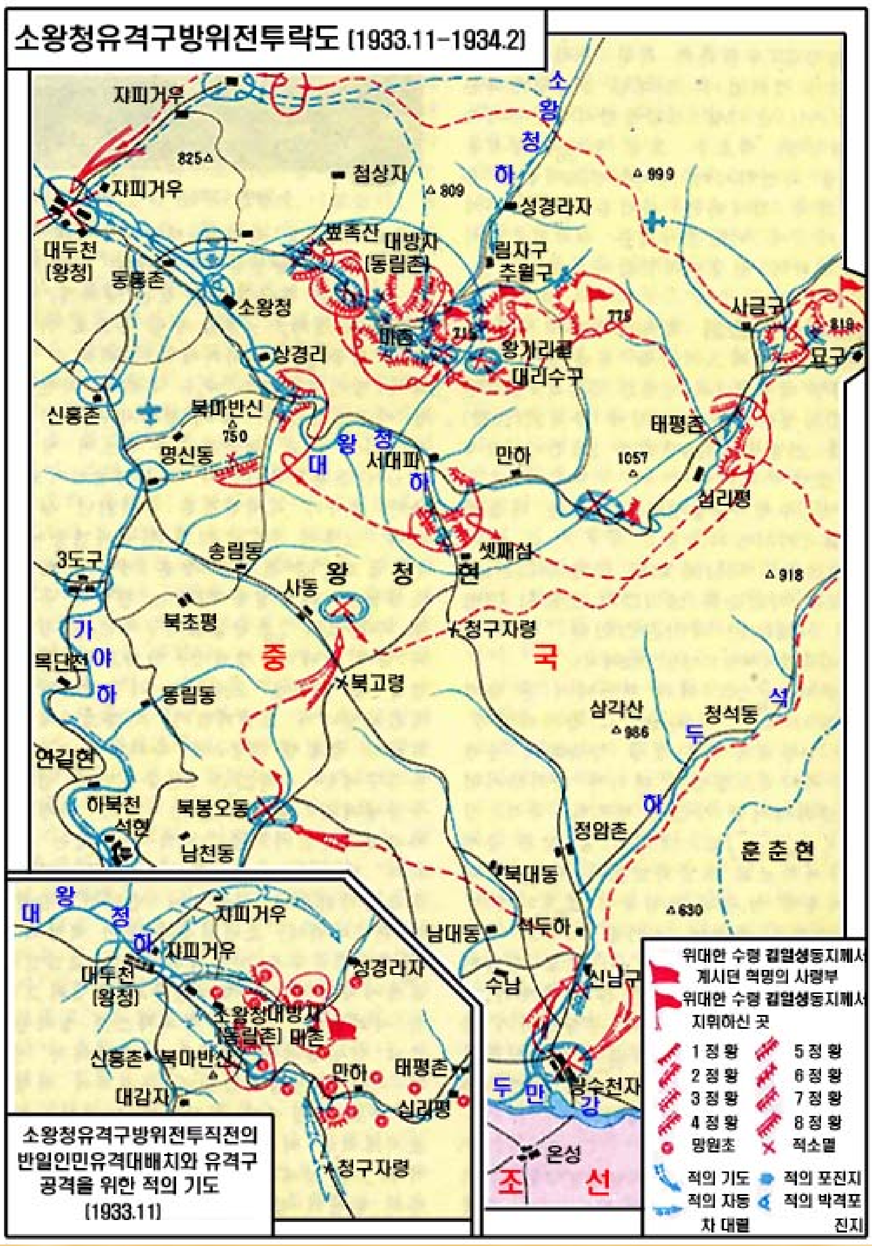
마촌작전 과정에 이채를 띤 것은 돌벼락작전이었다. 유격구와 군대와 인민은 뾰족산과 같은 전초진지들에 돌무지들을 마련하였다가 ≪토벌대≫가 달려들 때마다 무리죽음을 안기곤 하였다. 경사가 급한 산벼랑으로 돌사태가 쏟아져내릴 때 전장을 들었다 놓은 벼락치는 듯한 소리와 포연을 방불케 하는 자욱한 먼지구름은 침략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기병대열을 와해시키고 차와 포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데서는 이 돌벼락작전이 매우 큰 은을 냈다.

소왕청 유격구역

마촌작전이 낳은 영웅들 가운데는 ≪13연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격대원도 있었다.

≪13연발≫은 왕청지방에서 모험청년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가 모험가로 소문나기 시작한 것은 공청조직의 위임을 받고 두만강변의 어느 세무서에 가서 무기를 탈취해 온 때부터였다. 그는 세무서에 가서도 나으리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조선 청년이올시다, 공청원이올시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 권총을 빼들고 여유작작하게 벽에 걸려 있는 보총을 세 자루나 노획하였다. 그런 다음 전화로 경찰관주재소를 호출하여 네놈들은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공산당이 나타났다, 빨리 빨리 총동원해서 오라고 호통질했다. 경찰관주재소에서는 사건현장에 기마경찰대를 급파하였다. ≪13연발≫은 하마트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뻔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이와 비슷한 모험을 자주 되풀이하였다. 공청조직이 그에게 어떤 비판을 했으리라는 것은 여기에 구태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 ≪13연발≫이 쑥밭골 초소에서 항일혁명사에 한 페이



지를 당당하게 차지할 만한 위훈을 세웠다. 쑥밭골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차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 방차대의 책임자가 바로 ≪13연발≫이었다. 그는 소대장 겸 이 대에 조직되어 있는 공청소조의 책임자였다.

일본군, 위만군, 자위단으로 이루어진 ≪토벌대≫의 대집단은 밤중에 은밀히 쑥밭골을 포위하고 초소에 달려들었다. 방차대는 새벽부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귀틀집 초소의 일각이 불타서 무너질 때까지 일곱 차례나 되는 적의 돌격을 물리쳤다. ≪13연발≫은 탄우속에서 공청소조회의를 열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동무들, 우리의 뒤에는 유격근거지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 만일 여기서 한치라도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조선청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자격이 없다. 몸이 열백 번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사적으로 초소를 지키자!≫

적개심에 불타는 방차대원들을 총칼을 꼬나들고 적들의 무리속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려고 하였다. ≪13연발≫도 그런 충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날 개인영웅주의, 모험주의의 병질 때문에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던 이 용감무쌍한 싸움꾼은 이처럼 혈전속에서 자기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세련된 지휘관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응원부대를 이끌고 쑥밭골에 달려갔을 때 그는 열세발의 총탄을 맞고 초소에 쓰러져 있었다. ≪13연발≫이란 별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방차대 성원들중에는 일곱 군데, 세 군데, 두 군데의 부상을 당한 전투원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도 ≪7연발≫ ≪3연발≫ ≪2연발≫이란 별명이 붙었다.

왕청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13연발≫이라고 불렀다. 나도 역시 그렇게 불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본명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아득히 사라져갔다.

그의 본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본명보다도 항일전쟁이 만들어낸 ≪13연발≫이라는 별명이 독자들에게 더 좋은 여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 데서 나는 위안을 얻는다.

전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일본군의 포화에 잿더미가 된 소왕청을 뒤에 두고 주민들은 십리평으로 피난하였다.

적들은 군사인원과 비군사인원, 어른들과 아이들, 남자들과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족족 다 죽였다. 동기≪토벌≫은 소왕청에서 수백명의 희생자를 냈다.

우리가 십리평 다섯째섬 목재막앞에서 부대를 데리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피난민 옷차림을 하고 보초소를 통과한 일본군은 마촌에서 대왕청으로 이동하는 인민들의 뒤에 달려들어 기관총을 퍼부어댔다. 이 습격에서만도 우리는 수십 명의 군중을 잃었다. 밤중에 두천평 마을을 포위한 적들은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잠든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유격구에서 연극대본을 잘 쓰던 구청년단 서기 백일룡이네 가족도 모두 죽었다. 그해 ≪토벌≫에 소왕청의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유격구 형편이 최악의 상태에 달했을 때 리수구골 안에는 1,5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그 피난민들을 대왕청으로 빼돌리느라고 유격대원들은 그때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다. 어떤 때는 대왕청으로 흐르던 피난민의 행렬이 적의 불의 습격에 두 토막으로 동강나 서로 종적을 찾느라고 온종일 산판을 헤매기도 하였다. 그때 나는 하루종일 팔에 애기들을 안고 혁명군중을 엄호하였다. 다른 유격대원들도 싸움을 하면서 노약자들을 부축해주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 사이에 흐르는 군민일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눈물겨운 화폭이 이렇게 엮어졌다. 그 화폭을 이룬 한점 한점이 다 피였고 눈물이였다.

김명숙

피난민들을 데리고 리수구에서 십리평으로 가던 그날의 정경을 회고하면 조금도 목에서 겨불내가 나는 것 같다.

피난민들 가운데는 ≪토벌≫을 겪느라고 20일 동안이나 낟알구경을 하지 못하고 콩깍대기와 무시래기 같은 것으로 끼니를 이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십리평에 가서도 쌀이 없어 소가죽을 삶아 먹었다.

일제군경의 토벌에 불타는 집들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해를 쳐다볼 힘도 없던 그 기아의 해들에 유격구 인민들이 먹던 ≪음식≫을 후대들 앞에 전시한다면 그들은 선열들이 체험한 그 인간 이하의 주림앞에서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김명숙(연길)은 유격구 시절에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해 생때같은 두 자식을 잃고 자기도 죽을 뻔했다. 일주일 이상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자식이 굶어 죽은 것을 보고서도 밖에 내가가 묻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두막에 그냥 누워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웃들이 와서 시신을 오두막으로 끌어냈지만 땅에 묻지 못하고 가랑잎만 덮어주었다. 그들도 김명숙이처럼 일주일씩 굶은 사람들이어서 땅에 구뎅이를 팔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해방된 조국 땅에 돌아와 첫 쌀밥을 먹을 때 김명숙은 두 자식을 앗아간 유격구 시절의 보리고개를 회상하며 슬피 울었다.

처창즈 유격근거지에는 어랑촌전투 때 적의 기관총탄알을 여덟 군데나 맞고 두개골이 빠개져서 뇌수가 드러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그 검질긴 생명 때문에 그는 ≪팔연발≫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총탄 여덟 발을 맞고서도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팔연발≫도 동남차 정부에서 일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가 죽기 전에 동지들을 향해 이런 절규를 하였다.

≪차라리 적의 탄알을 여덟 발 맞았을 때 죽었더라면 영웅이라는 이름이라도 남겼을텐데 여기서 억울하게 굶어 죽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적들은 유격구들을 총검으로 봉쇄하고 그 울타리속에 인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그때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그 시절에 당한 희생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심혼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일본 지배층은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행을 두고 도덕적으로 심심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재정돈하는 과정이며 완성에로 이끄는 과정이다. 눈을 감는다고 역사가 스스로 인멸되는 법은 없다. 일본이 구가하고 있는 고도성장의 비단이부자리 위에 조선민족의 피가 배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도 이방인들의 철화에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누이와 딸들이 강점군들에게 정조를 강탈당하는 국난을 체험하지 않았던가. (내일 계속)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지휘부 귀틀집

위대한 투사 김정일

유리 카스트로 로메로(페루)

항일전의 포성이 장엄하게 울리던
40년대의 백두산에서
소년장군 탄생하시어
산천초목도 감격에 목메어
환호성을 터뜨렸더라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의 불바람 속에서도
언제나 두려움 없이
아버님을 도우시며
혁명의 한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소년장군 **김정일**
사회주의 길만이

굶주림과 빈궁을 없애고
만민의 평등 이룩하는
가장 정확한 길임을 밝혀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참다운 사회주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수령님의 혁명위업
믿음직하게 계승하시거니
아… 위대한 투사 **김정일**동지를
인민들은 충성의 한마음 담아
높이 높이 받들며 따르리라

걸그림 ≪1860년대의 파리전경≫

걸그림 ≪1860년대의 파리전경≫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프랑스민주인민동맹 위원장이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지지 프랑스위원회 위원장인 샹딸 꾸쟁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동액틀로 된 미술작품 ≪1860년대의 파리전경≫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노동계급의 위대한 영도자로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려는 샹딸 꾸쟁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여성사회활동가로서 정의와 민주, 진보를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고 있는 샹딸 꾸쟁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깊이 탐독하고 빛나는 혁명역사를 체득하는 과정에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었으며 그이를 현시대를 향도해 나갈 위대한 지도자로 높이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기의 열렬한 지향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그이께 드리고 싶었다.

1982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가장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 5대륙의 방방곡곡에서 다채로운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더욱 흥분시켰다.

그는 가장 의의 깊고 진귀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진지한 토론도 여러 번 벌이었으나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섬세한 금은세공품들, 국보와 가보로 여기는 귀중한 도자기공예품들, 만년장수를 바라는 고급약재들, 값지고 희귀한 제품들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대를 향도해 나가시는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를 높이 우러르며 경모하는 자기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기에는 미흡한 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였다.

이날도 깊어 가는 밤과 함께 어떤 선물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키려 옆에 있는 전축의 스위치를 넣었다.

전축에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인터나쇼날≫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나왔다.

그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입 속으로 조용히 따라 불렀다.

일어나라 저주로인 맞은
주리고 종된 자 세계
우리의 피가 끓어 넘쳐
결사전을 하게 하네
…

노래를 부르노라니 불현듯 그의 눈 앞에는 압제의 총칼을 맞받아 나가는 파리꼼뮨용사들의 모습과 그날의 파리시의 전경이 펼쳐져 왔다.

파리시청위에 휘날리는 붉은기발, 파리꼼뮨의 장엄한 선포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20만 군중의 시위대열, 첫 노동계급의 정권이 주인이 된 노동자들의 희열에 넘친 모습…

파리꼼뮨은 인류역사에서 첫 노동계급의 정권이였으며 새로운 국가형태였다.

파리꼼뮨은 자기의 존재기간 부르주아통치기구들을 파괴하고 꼼뮨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자본가들이 소유했던 공장, 기업소들을 노동자들에게로 이양하였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리, 노동시간단축 등 혁명적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파리꼼뮨은 72일간 밖에 존재하지 못하였다.

그의 눈 앞에는 그때의 참상이 안겨오는 듯 하였다.

반혁명군대의 총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꼼뮨용사들, 우세한 적을 맞받아 영웅적으로 싸우며 외치는 피타는 절규, 야만적인 백색테러가 감행되는 파리시의 참경, 이 모든 것이 한데 엉키여 그는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참으로 ≪5월의 피의 주간≫에 꼼뮨용사들과 시민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었다.

꼼뮨용사들과 반혁명군대와의 치열한 격전을 그려보는 샹딸 꾸쟁의 두 눈에선 뜨거운 것이 흘러 내렸다.

전축의 노래가 멎고 사위는 고요했으나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의 귓전에는 쓰러지면서 외치는 꼼뮨용사들의 피타는 절규가 그대로 울렸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줄 위대한 수령을 부르는 꼼뮨용사들의 부르짖음이였다.

그렇다.

인류역사상 첫 프롤레타리아혁명이였으며 최초의 프롤레타리아정권이였던 파리꼼뮨은 수령의 현명한 영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탁월한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파리꼼뮨이 남긴 피의 교훈이였다.

샹딸 꾸쟁은 소스라치듯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의 가슴에는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일어났다.

그것은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꼼뮨용사들이 그처럼 목마르게 고대하던 탁월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한없는 긍지와 자랑, 행복의 격정이였다.

그렇다!

시대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 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현 시대의 위대한 영도자로, 스승으로 모시였기에 ≪인터나쇼날≫노래의 이념,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깊은 사색 속에서 드디어 절절한 염원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확정하게 된 그는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안고 창문을 열어제꼈다.

파리시의 밤하늘에 은백색빛을 뿜는 별무리를 바라보느라니 어느덧 마음은 언제나 동경해마지 않는 주체의 조선으로, 평양으로 끝없이 나래쳐갔다.

아, 오매에도 그리운 친애하는 그이를 언제면 만나뵈올 수 있을가?!

만민이 우러르는 그이를 시대의 향도성으로 모신 인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가슴에 넘쳐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누를길 없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전을 썼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샹딸 꾸쟁은 축전과 함께 걸그림 ≪1860년대의 파리전경≫을 선물로 삼가 올리게 되었다.

그는 선물을 올리면서 우리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 40돌에 즈음하여 이 소박한 선물을 올리게 된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귀중한 꼼뮨을 낳은 우리 민족의 상징인 파리의 모습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끝없이 존경하며 따르는 저의 경모의 정을 삼가 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라(3)

노동신문 정론 - 주체91, 5월 16일

온 세계를 경탄시켜 온 조선의 일심단결, 위대한 혼연일체는 성스러운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최상의 수준에 올라 섰으며 조선민족의 민족적자존심도 이 길에서 비상히 높아 졌다.

우리 인민이 소리높이 자랑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군대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는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최고도로 폭발되여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천만대적이 달려 드는 전장에서 장검을 비껴 들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친 호걸남아를 가리켜 기상만으로도 적을 이기는 명장이라고 일컬었고 가혹한 기아선상에서 웃음으로 돌파구를 열어 간 ≪철의 흐름≫의 이야기도 남겼다.

력사는 두세기를 뒤흔들며 태양처럼 떠오르신 우리의 **김정일**동지와 같이 걸음걸음 희생을 각오하고 제국주의강적과 맞서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걸출한 령도자, 강철의 령장을 알지 못한다.

성스러운 피줄기가 있고 위대한 계승이 있으며 영원한 최고사령관복 꽃 피는 미래가 마련되여 있을 때 무한대한 락관주의정신이 분출된다.

그렇다. 백두밀림에서부터 전도 양양한 미래를 안고 흘러 온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력사가 오늘 그것을 력사앞에 자랑스럽게 증명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1990년대에 제국주의원쑤들이 우리를 제재하겠으면 하라,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그렇게도 확신에 넘쳐 선언하신것도 조선에는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이 계신다는 든든한 배심을 지니고 계시였기때문이였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힘겨운 혁명의 천만리길을 웃음과 랑만으로 헤쳐 가시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락관적이며 선군위업이 생기발랄한 활력을 지니고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는데 있다.

온 나라의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숨결과 걸음도 함께 하고 고난과 시련도 함께 헤쳐 나가기에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 못한다. 영원한 장군복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 막을수 없다.

20세기의 준엄한 시련을 두려움없이 이겨 낸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21세기를 주체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승리의 세기로 빛내여 나갈것이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라

성스러운 위업은 혁명가들에게 원대한 포부와 완강한 투쟁을 요구한다.

혁명의 진두에 최고사령관기 펄펄 날리는 우리의 선군위업은 전도 양양한 백전백승의 활로를 보란듯이 열어 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창조한 우리 인민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류의 앞장에서 더욱더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기세드높이 전진해 나가는 존엄 있고 긍지 높은 자주적인민으로 세상에 자랑 떨치고 있다.

주체의 선군사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보루를 사수하며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신성한 력사적사명이 우리 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앞에 지워 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내가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굳건하며 우리 나라는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총대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것입니다.** ≫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승리에 도취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구호이다.

최후승리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선군의 영광스러운 자욱을 찍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더 광명한 미래에로 무한히 고무하고 계신다.

래일의 희망을 안고 고난도 꿋꿋이 이겨내며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미더운 선군투사들이여,

우리가 그 모진 고난속에서도 마음의 거울로, 래일의 희망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해 온 아이들을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 나가자.

어린이들은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 아름다운 미래가 비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으로 찬란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신심에 넘쳐 내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들, 고난을 이겨 낸 우리의 아이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의 뜻 깊은 명절, 이제 곧 다가올 6.1아동절이 벌써 우리 장군님의 웅심 깊은 마음속에서 열렬한 축복을 받고 있다.

미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라는것이 선군정치로 내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꽃 피워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속에서 매일매시각 피 끓는 숭고한 뜻이다.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허리띠를 조이면서 고난을 헤치고 총대를 틀어 쥐고 사선의 모진 고비들을 웃음으로 맞받아 나가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총대는 우리의 웃음이고 행복인 혁명의 새세대들을 지켜 주는 위력한 무기이다.

총대로 아이들을 지키라, 총대로 귀여운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라, 아이들의 눈동자에 그늘이 지지 않게 총대를 더 굳세게 잡으라.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선군의 이 엄숙한 요구를 삶의 좌표로 삼고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자라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의 방선을 지켜 서며 오늘의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나라의 영웅이 되고 박사가 되고 강성대국의 주인공이 된다.

소년단 붉은 넥타이를 가슴에 휘날리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낸 학생소년들이 오늘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에로 탄원하여 달려 나가는 장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감회는 얼마나 뜨겁고 기쁨은 얼마나 큰가.

≪고난의 행군≫ 첫 기슭에서 태여난 아이들은 벌써 8살이다. 오늘의 우리 어린이들은 고난의 길에서 풀죽맛을 보고 통강냉이를 씹으면서 선군의 불길속에서 자라고 단련된 혁명적세대이다.

전기가 끊어 지고 공장들이 숨 죽었던 최악의 역경속에서 고고성을 터친 우리 어린이들은 나서부터 총대의 보호속에 선군의 덕을 뼈와 살에 새기면서 장군님품속에 안겨 자라난 선군시대의 꽃봉오리들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서 총포소리 없는 전쟁을 벌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기어이 살아난 영웅적산아들이다.

선군시대의 첫 세대인 우리의 선군동이들은 어제날의 항일아동단원들과 소년중대원들처럼 세월이 흘러 간 뒤 오늘의 선군력사를 또 자기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며 선군전통을 긍지높이 물려줄것이다.

어린이들이 자라면 청년들이 된다. 청년중시이자 혁명의 미래중시이고 청년사랑이자 미래사랑이다.

선군위업을 떠메고 나갈 가장 전투력 있고 활력 있는 혁명대오인 청년들을 사랑하고 내세움이 없이 어찌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생각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면서 내 나라의 창조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운 우리의 영웅적청년군인들,

백번도 더 기운 마대를 결혼지참품으로 삼고 태여나는 아이들에게 고난의 력사를 이야기해 줄 랑만을 안고 피땀을 바쳐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

위대한 수령님의 전후복구건설구상을 받들고 이 땅에 사회주의에로의 위대한 전환의 길을 열어 놓은 전투부대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였던것처럼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강성대국목표를 점령해 나가야 할 강위력한 전투부대도 다름아닌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인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은 앞날의 강성대국에서 살 자랑찬 세대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우리의 최고리상이며 가장 보람찬 투쟁목표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성이 높은 청년들이 선군길을 앞장 서 열어 나가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땅은 작아도 한번 움씰하면 지구가 진동하고 인구는 많지 않아도 일심단결로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힘을 떨치며 감히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겨 주는 강위력한 나라, 모든것이 흥하여 인민의 행복이 물결쳐 설레이는 사회주의무릉도원,

세상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우리를 투쟁과 위훈에로 부른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선군길의 천만시련도 달게 여기며 투쟁해 온 우리 인민이 온 세상이 부럽도록 잘 살 날이 멀지 않았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첨단의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끌어 올리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은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에로 우리 인민이 더 높이, 더 빨리 달려 나가게 한다.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고 통일의 환희가 대하처럼 강산에 차넘쳐 반세기이상 응어리 졌던 눈물의 자욱이 후련하게도 씻겨 져 나가는 하나된 땅, 둘 합치여 더 큰 하나가 된 기쁨, 태양민족의 존엄 누리에 빛발쳐 갈 삼천리강토의 창창한 앞날이 심장을 후덥게 적신다.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병사들이 구월산에 새겨 놓은 이 소박한 구호를 두시고 어찌하여 ≪고난의 행군≫나날에도 그렇게 기쁘시여 높이 평가하시였고 오늘도 뜨겁게 추억하시는것인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심중과 숭고한 뜻을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할것이며 구월산병사들의 그 아름다운 미래관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대홍단은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좋은 리상촌으로 됩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신심 넘친 말씀을 신념으로 새겨 안고 강성대국을 앞당겨 오는 미래창조자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 떨칠것이다.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우리는 빈 터에서 시작하였네≫노래를 부르면서 위대한 수령님 따라 헤쳐 온 거창한 창조의 력사를 돌이켜 보듯이 우리의 후대들은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장군님의 심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의 선군시대 병사들과 인민들의 피땀의 자욱을 추억깊이 새겨 볼것이다.

선군시대 병사들과 인민들이여,

력사상 처음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개척하고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찬란한 미래에로 더 힘차게 전진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선군시대를 펼치신 **김정일**동지는 우리 민족과 자주위업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미래이시다.

(11면에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20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18일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 사업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전후 우리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 기초건설 과업이 나섰습니다. 전후 시기 설비와 자재, 자금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했던 형편에서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남에게 의존하거나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 1955년 ≪4월 테제≫와 주체44,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하신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데 대하여≫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접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 그 표형 형태들을 생동한 자료들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알려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뿌리 빼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주체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뿌리 빼는 것이 선결조건입니다. 그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큰 나라를 숭배하는 사상, 다시 말해서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 굴종사상이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춰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사상입니다. 또, 교조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구체적 현실을 타산하지 않고 일반 명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다 놓는 사상입니다.

창조성을 잃고 남의 경험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자기 실정에 맞지 않는 것까지 통째로 삼키는 것은 다 교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하게되면 나라가 망하고 혁명과 건설도 망쳐먹게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확립에 관한 사상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뿌리깊이 박히게 된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고 그것이 남아있게 된 원인과 극복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 속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사상독소가 남아있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 교양을 잘 하지 않고 또 교육부문에서 우리의 것보다도 다른 나라의 것을 더 많이 배워주는데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노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의 기본사상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기성이론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들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셨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도 우리나라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고 자기 민족에 대한 허무주의적 견해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체45, 1956년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5.1절을 맞으며 분단별 예술소조경연대회를 위한 학생들의 공연연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연종목들이 다른 나라의 노래와 춤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의 노래와 춤으로 선정된 공연종목을 우리의 노래와 춤으로 출연종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이께서 바꾸어주신 종목을 보면 합창 ≪아름다운 우리나라≫, 중창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자≫, 독창 ≪원수님께 맹세 다져요≫, 무용 ≪행복한 우리생활≫과 같은 것들이였습니다. 또 어느날 그이께서는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온 한 교원이 학생들에게 유럽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선 사람이 유럽의 풍습을 모르는 것은 문화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자기 나라의 풍습을 깔보는 것은 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표현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들 속에서 민족의 귀중한 것을 허무적으로 대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상관점을 극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뿌리 빼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학습과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학습과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잘 알게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입장과 관점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신문, 잡지들을 일상적으로 읽도록 하시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견학도 자주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청소년 학생들은 남포, 송림, 순천, 흥남지구에 대한 견학을 진행하고 들끓는 나라의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학습과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주체적인 학습 관점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6, 1957년 9월 13일 평양 제1중학교 민청초급단체총회에서 하신 결론, ≪청년 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자.≫에서 학습에서 주체를 세워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과목 학습에서 자기의 것을 기본으로 학습하고 실지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모두 남의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의 것을 숭배하는 그릇된 태도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의 것을 더 잘 배우고 빛내이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학과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자기 정신을 가지고 배우며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체44, 1955년 가을 지리시간에 있은 일입니다. 한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대답할데 대한 질문을 받고 조선은 중국의 동쪽과 소련의 동남쪽 일본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학생의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나라는 아시아대륙의 동쪽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뻗은 조선반도와 근해에 널려 있는 3,0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날 그 학생은 자기 나라를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보지 못하고 외국의 교재내용을 기계적으로 따라 외운 자기의 교조주의적인 학습태도에 대해서 깊은 자책속에 돌이켜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써먹을 수 있는 활용능력을 키울데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생들이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과목에 따르는 과외연구소조들을 조직하시고 그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의 것을 더 잘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평양 제1중학교에 다니실 때 학교 예술소조사업과 미술소조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일부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춤과 노래, 그림을 무턱대고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우리나라 춤과 노래, 그림을 좋아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예술소조나 미술소조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소조사업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45, 1956년 6월 학교온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조원들이 남방식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온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단순히 희귀한 식물들을 구경이나 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민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식물들을 많이 심고 혁명과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산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점차 극복되고 주체적인 사상관점이 확고히 **지게 되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청소년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보고 대해 오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18광주의 염원은 반드시 실현돼야한다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날을 부르는 광주의 함성이 온 강산에 메아리치던 그날로부터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 민중은 가열처절했던 항쟁의 그 나날에 ≪유신체제 철폐하라≫,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라≫, ≪미국은 간섭말라≫고 외치며 광주시가를 선혈로 물들이고 산화한 광주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각오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22년전 전두환군부독재집단이 미국의 사주밑에 자행한 5.17파쇼폭거를 계기로 폭발했던 광주민중항쟁은 자주와 민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분출이였고 ≪한국≫대중운동사와 동방민중의 근대변혁운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중항쟁이였습니다.

광주민중항쟁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친미사대세력의 반민족반민중적 책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했으며 하나로 굳게 뭉친 민중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 수 없다는 고귀한 진리를 재확인해주었습니다.

광주민중항쟁이 ≪한국≫대중운동사와 동방현대변혁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하고 광주항쟁자들이 우리 민중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추억속에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80년 5월, 광주의 항쟁자들이 바란 것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실현, 조국통일이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위해 그처럼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그때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항쟁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염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광주항쟁자들이 피나게 절규했고 지금 우리 민중이 그처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은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현실은 각계 민중이 광주항쟁자들이 들었던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더높이 치켜들고 그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한국≫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투쟁의 열풍을 더욱 거세게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처럼 광주의 유혈참극은 미국이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열망을 압살하고 친미독재체제와 분단체제를 그대로 유지, 연장해서 이 땅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군부집단을 사주해서 자행한 극악무도한 국민살육만행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광주학살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한 저들의 죄행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간섭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침략과 약탈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에 대한 ≪악의 축≫ 망발을 거듭하며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한편 미국식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강요해 ≪한국≫경제와 민생을 파산몰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제침략군이 남아 있고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지속되는한 구천에 사무친 광주영령들과 그 유족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고 우리 민중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주의 한을 풀고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성취하자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며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미제에게 빼앗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당면해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인정과 사죄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나섬으로써 5월을 광주학살의 주범 미국을 단죄하는 투쟁의 달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반미반전반핵,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확대해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주한미군을 몰아내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친미사대매국,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청산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광주항쟁자들이 바라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제의 하나입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친미사대매국노들은 미국의 식민지화책동에 편승해서 민족반역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민족과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는 근로민중의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을 비롯한 제반 민주적 권리와 자유도 무참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각계 민중은 광주항쟁자들이 그처럼 열망하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이회창과 수구보수세력의 척결, 민중생존권보장, 구속인사석방, 한총련합법화실현, 국보법을 비롯한 악법철폐 등의 구호를 들고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항쟁자들의 염원을 실현하자면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의 열풍을 더욱 거세게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선언이고 대단결선언입니다. 6.15공동선언이행에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항쟁자들의 원한과 염원을 풀어주고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광주민중항쟁 22돌 기념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8일~19일

(9면에서 계속)

김정일장군님숭배는 미래에 대한 가장 열렬한 확신이며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은 선군시대에 태여난 모든 세대와 세대들의 크나큰 영광이고 더 없는 행복이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어둠을 밀어 내고 밝은 아침, 찬란한 미래를 안아 오는 광명성으로 높이 솟아 오르신 우리 장군님은 빨찌산들에게 있어서 광복된 조국의 모습이시였고 전화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승리한 조국의 모습이시였으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시대를 열어 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부강번영하는 조선의 찬란한 앞날이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강성대국조선의 래일을 확신에 넘쳐 내다본다.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야,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환히 밝고 창창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쿵쿵 울려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당과 군대와 인민,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넘겨 주시고 조선의 미래를 맡기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영원히 담보되여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없으면 선군도 없고 선군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선군시대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것은 우리 전사들의 제일 가는 생명이며 최고의 락관주의이다.

백두산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마음속에 그리면서 미래를 사랑하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 진 빨찌산의 박길송지대장처럼 조선의 영원한 청춘인 백두산장군을 열렬히 사랑하는 21세기 열혈투사가 되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라는 리수복영웅의 넋을 안고 미래를 위해 한몸 다 바치자.

우리의 날개우에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 평양이 있기에 이 한몸 저 하늘의 꽃보라되여 휘뿌려 지리라는 길영조영웅의 그 고귀한 랑만의 세계를 안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선군시대의 일심단결,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으로 뜻과 정을 나누며 선군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사이의 혁명적단결이다.

≪전선에서 만나자≫라는 노래를 부르며 전호가의 구수한 흙냄새와 함께 살고 사탕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하다는 신념으로 사는 동지들이야말로 진정한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며 선군시대의 가장 떳떳하고 긍지로운 혁명전사들이다.

우리 가는 앞길에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길이 다시 놓인다 해도 우리는 어제날처럼 선군기치 따라 가는 길 험난해도 더 크게 웃고 혁명군가 더 높이 부르며 용기백배해 전진할것이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로선은 광명한 미래를 불러 온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 선군로선을 따라 개척되는 조선의 미래를 끝없이 사랑하라!

항쟁의 횃불을 들었다

5.18광주민중항쟁을 떠올릴때면 정의에 살고 불의를 용서치 않은 청년학생들의 장한 모습을 잊을 수 없죠. 5.18 그날의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해 **김현규**씨 모시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광주항쟁을 되새겨 볼때마다 우리 민중은 투쟁의 기폭제가 되어 광주항쟁을 폭발시킨 청년학생들의 위훈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광주항쟁 22돌을 맞는 지금 5월의 횃불을 들고 영웅적 광주항쟁을 폭발시킨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전두환파쇼도당의 비상계엄령실시에 항거해서 항쟁의 불을 지폈잖아요. 그 상황부터 먼저 얘기됐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5월 18일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18일 아침에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의 10여개 대학의 수백명의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앞에서 ≪계엄해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광주항쟁을 폭발시킨 발단이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당황한 전두환일당은 계엄군을 투입해서 광주시내 전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대살육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분격한 학생들은 투석으로 대항하면서 완강하게 싸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광주역과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거쳐 금남로, 충장로, **동, 그리고 **동 등 시내곳곳을 누비며 전두환일당의 동족살인만행의 진상을 고발하고 각계 민중을 투쟁에로 궐기시켰습니다.
사회자 : 그 불같은 호소에 접한 시민들은 화염병과 각목, 쇠파이프 등을 들고 우리도 나가 싸우자고 하면서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해 나선 것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물론 지식인, 공무원, 상인, 종교인, 심지어 칠순의 노인들과 애어린 학생들까지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합세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백명의 학생들의 참여로 시작된 투쟁이 19일에는 5만명, 20일에는 10만명, 21일에는 30만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참여한 대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했던 겁니다.
사회자 : 청년학생들은 광주항쟁을 폭발시켰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우선 시민들을 각성시키고 결사적인 항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대민홍보활동을 힘있게 전개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청년학생들은 항쟁투사이자 선전자였습니다. 전남대생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은 18일 오후부터 계엄군의 학살만행과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항쟁이 격렬해지자 전남민중학생연맹의 명의로 투쟁특보들을 발간하여 시민들의 투쟁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들과의 연대를 긴밀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쟁자들앞에서 우리는 왜 싸워야하는가를 폭로하고 광주시민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외치며 시민들을 투쟁에로 분기시켰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투사의 노래≫, ≪정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과 같은 노래들로 항쟁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죠. 또한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투쟁의 선봉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청년학생들은 ≪계엄령해제하라≫, ≪전두환 찢어죽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무장을 들고 언제나 항쟁군중의 앞장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공격으로 군중들이 흩어지면 모이자고 외치며 선봉대가 되어 스크램을 짜고 신속히 항쟁대열을 정비하고 싸웠습니다. 빼앗은 투쟁물들에 군용트럭과 장갑차를 몰고 계엄군의 저지선을 박차고 도청에 대한 공격을 거듭 했고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사회자 : 청년학생들의 이같은 선도자적 역할과 죽음도 불사하고 싸운 시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광주는 드디어 해방되게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년학생들은 민중의 희망이 피어나는 해방된 도시를 지키기 위한 싸우면서도 언제나 민중의 앞장에 섰죠.
김현규 : 청년학생들은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각 대학 학생대표들로 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해방된 광주시내의 질서회복과 유지에 앞장섰고 또 계엄군의 공격에 대처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각 지역의 ****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피로써 쟁취한 광주를 사수하자고 시민들에게 뜨겁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전두환일당이 광주시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자 학생결사대를 조직하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와 ***에서 희생적으로 싸웠습니다.
사회자 : 광주항쟁의 나날 우리 청년학생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와 자유를 지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그때로부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오늘도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은 광주항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그날의 애국학생들의 불굴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뜻을 이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광주민중항쟁 22돌 기념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8일~19일

≪시민의 힘과 지혜로 미국 유죄≫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80년 5월 27일 새벽 윤상원 시민군 대변인이 역사를 향해 남긴 마지막 말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광주학살 진짜 주범을 밝히는 5.18 시민법정이 18일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5.18 시민법정 재판장 최병모, 검사 심재환 외 2명, 변호사 장경욱, 권정호, 배심원 단장 문정현 외 20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법정은 신군부와 광주학살을 공모 지원한 미국정부와 군의 고위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광주학살 당시 위컴 주한 유엔군 및 한미 연합사령관,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 머스키 미 국무장관, 홀부르크 미국무성 아태담당차관보, 또 책임자로서 카터 미국 대통령. 이들은 80년 당시 광주학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인죄, 인도에 반한 죄, 피고인으로 제소됐다. 이에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은 주한미대사관에 기소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심재환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기소하기 시작했다. ≪12.12 군사반란 이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신군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군대를 동원하여 강경 진압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파괴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했다. 이에 학생들은 ≪비상계엄 철회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군은 학생들을 총과 칼로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광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광주시민들도 사살했다. 이를 전후하여 미국은 한미연합사 통제하의 한국군 해병 제1사단, 보병 20, 26, 30, 33, 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육국참모총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내정을 직접적으로 간섭했다. 미국은 또한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를 파견, 5.27 도청진압작전을 신군부와 공모했다. 신군부를 지지함으로써 미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했다. 이에 헌장 제2조 제4항에 정한 내정간섭행위, 헌장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 미국을 변호한 변호인 측은 ≪미국과 광주학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12.12, 5.18 등의 일은 미국과는 무관한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학살 피해자 홍금숙, 홍란, 이광정, 김효석, 최정기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금숙씨는 광주 시내에서 오빠를 찾고 주남마을로 들어가던 중 공수부대에 무차별적인 사격을 당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피해자이다. 홍금숙씨의 몸에는 그때 당시의 총사격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증인 홍란은 32세 나이로 80년 5월 27일 7살짜리 아들을 찾던 중 공수부대를 만나 총을 맞고 아직도 5월이 되면 그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고. 광주학살 당시 광주에 머물렀던 알로파트는 ≪광주사태가 일어났으니 주한미군은 24시간 대기하라≫, ≪광주 폭도들의 행동을 하루빨리 진압해야 한다≫며 진압교육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사측의 최후 논문이 시작됐다. ≪광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학생들, 남편을 마중나왔다 죽은 임신 8개월의 임산부, 총소리에 놀라 피하던 중 고무신이 벗겨져 다시 신던 중 죽은 중학교 1학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습니다. 이에 광주의 어머니들은 기뻐도 기쁘지 않고 먹어도 맛이 나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광주학살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분단된 우리민족을 하나로 묶는데 민중들의 의지를 높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본질을 밝히는 첫걸음을 80년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한국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측은 ≪지금까지 검사측의 발언 내용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은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남한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최대한 남한을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으로 일관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동맹관계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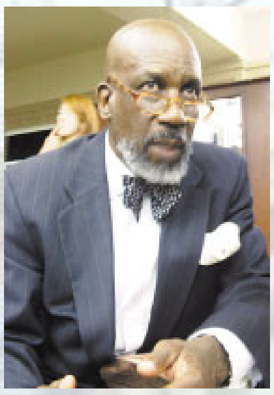
배심원의 최후 판결만이 남은채 법정은 끝났다. ≪80년 당시 미국대통령 피고인 제임스 얼 카터 외 7명의 피곤인 유죄판결≫ 배심원 단장 문정현 신부는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을 유죄 판결했다. 미국은 광주학살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 한다. 이후 피고인을 미국에 공개 제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법정을 지켜본 연세대 한 학생은 ≪시민법정으로 미국의 광주학살 진상이 밝혀졌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5월 정신을 계승해야 겠다.≫며 ≪피고인들을 다시 제소하는 법정이 열린다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법정은 끝이 났다. 그리고 시민의 힘과 지혜로 미국은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했다. 이제 다시 시작의 마음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간섭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2/05/19
전대기련 광전지부 5.18 공동기자단

현장 인터뷰 : 레노 하인즈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상주대표



1.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시민법정이 열렸다. 그 현장을 지켜본 소감은?

한마디로 훌륭한 법정이었다. 특히 시민법정에서 미국의 변호인들이 취한 행동이 미국 정부의 행동과 비슷해 인상적이었다. 광주학살에 대해 미국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치가 수천 수만의 유태인들을 죽이고도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것과 같다. 이번 5.18 시민법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말썽장이≫를 광주시민이 직접 나서 미국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시민법정을 준비한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긴다.

2. 5.18 시민법정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5.18에 대해 광주와 한국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시민법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5.18 시민법정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제까지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로 불리웠다. 하지만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최근 미국이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지만 과연 50년 양민학살과 80년 광주학살을 저지른 미국이 불량국가가 아닌가? 미국은 1984년 세계법정 판결을 거부했고, 국자협약, 군사협약을 깨뜨리는 등 국제적인 협약에서도 ≪말썽장이≫일 뿐이다.

4. 5.18은 이제 ≪통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그렇다.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많고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없고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제2의 식민지로 여기고 있다.

5. 80년 시민의 힘으로 광주를 지켜내고 2002년 시민의 힘으로 미국을 심판한 광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 세계적으로 독재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시민이 하나가 되어 항쟁을 펼친 곳은 드물다. 5월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02/05/19
전대기련 광전지부 5.18 공동기자단

현장 인터뷰 : 시민법정 증인 김효석씨

5.18 시민 봉사단 ≪오월의 빛≫ 회장

80년 5.18 당시 대동고 3학년이었던 김효석씨는 39살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5월 17일 처음으로 시위대로 활동하게 됐고 전남대 앞 녹두서점에서 윤상원 열사를 만나 화염병 제조와 투척하는 일을 맡게 됐다.≫광주 항쟁 동안의 일을 설명하는 김씨의 얼굴에서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이 시민군을 돕기 위해 온 줄로만 알았다. 시민들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지만 미국의 실체를 안 후 강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모두들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도청 수비대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5월 27일 새벽 광주기독교청년회(YMCA) 건물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다. 체포이후 수사과정에서 군인을 죽인 범인으로 오인 받아 7시간 동안 입에 걸레를 물고 있어야 하는 등 각종 폭력과 구타를 당했다.

≪80여일간 감옥에 있으면서 머리와 무릎을 다치는 등 온갖 고초를 치뤘다. 모든 5.18 경험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지금도 그 정신적 후유증이란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과거를 떠올리는 그의 모습에서 분노감과 서글픔이 느껴졌다.

5.18 시민 법정에 증인으로 참여한 김효석씨는 ≪80년 당시 처참했던 유혈의 광주를 만든 주범자, 미국을 법정에 세워 그 진실을 밝히고 규탄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5.18 시민법정의 여세를 몰아 2~3년 내에 UN의 형사재판소에 미국을 소송하는 것이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씨는 ≪오월의 빛≫에서 외지인들에게 5.18 사적지를 안내하는 일 외에 5.18민중항쟁 청소년교육위원회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알려가고 있다. ≪5월 항쟁의 원인은 바로 분단이다.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일,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계승하는 일은 통일의 길을 여는데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후세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고 싶을 뿐이다.≫고. 5.18의 주범임을 부인하며 해명과 보상을 하지 않는 미국과 80년 조선, 중아, 동아일보의 언론 폭력 앞에 역사가 왜곡된 현실, 신군부의 진압에 의해 암매장된 수많은 시신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 그는 말한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가야 할 힘겨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2002/05/19
전대기련 광전지부 5.18 공동기자단

현장 인터뷰 : 시민법정 시민검사 손미희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1. 이번 시민 법정 참여 동기는?

현재 반미 여성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5.18 시민법정이 ≪반미 법정≫이라는 점에서 또 역사성에 동의하면서 시민검사로 함께 하게 됐다.

2. 시민법정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법조인이 아니어서 법정에 선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격려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저녁마다 모여 리허설을 했지만 광주 학살의 진범인 피고가 없고 증인들과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어렵기도 했다.

3. 이번 시민 법정의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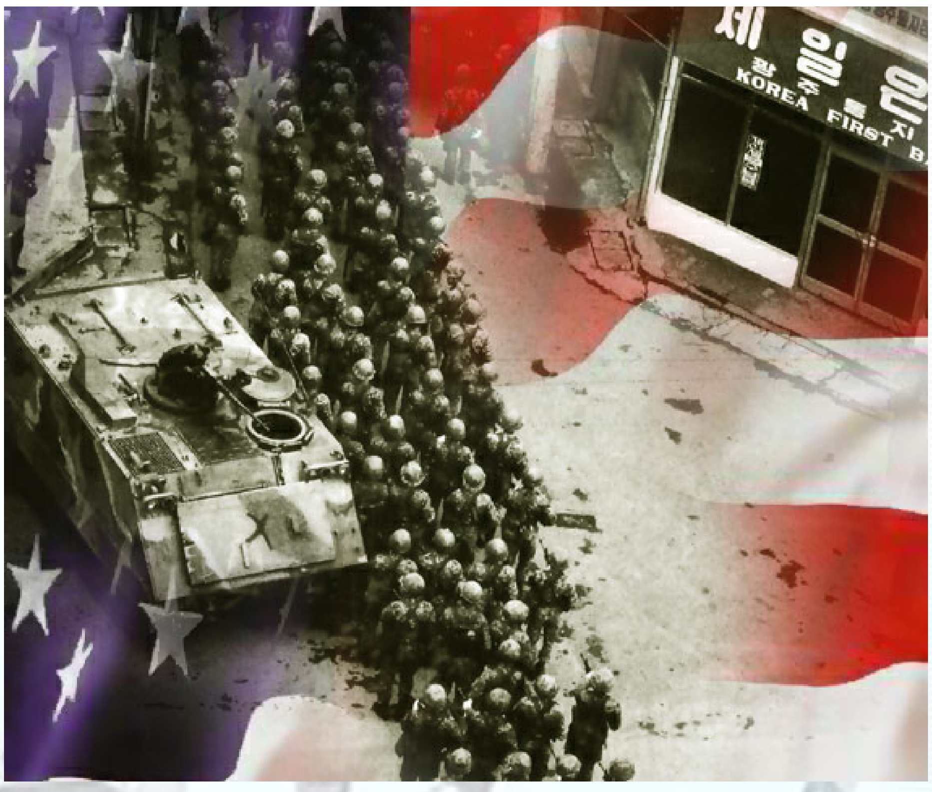
정신대, 양민학살, 조선일보 민간 법정에 이어 네 번째 시민법정인 이번 자리는 최초의 ≪반미 법정≫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금메달 강탈 사건, F-15K 도입 등 시민들의 ≪반미감정≫이 형성이 됐지만 이번 시민법정으로 미국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5.18 시민법정은 우리 나라의 자주성을 되찾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4. 시민법정의 성과를 이어나갈 방법은?

시민법정을 준비하며 주한미대사관에 기소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민법정에서 미국이 유죄로 판결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년이 흘렀다. 하지만 22년 동안 5.18을 단순히 광주의 문제로만 인식했던 것 같다. 이번 시민법정을 계기로 전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2002/05/19
전대기련 광전지부 5.18 공동기자단



현장 인터뷰 : 시민법정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시민법정에서 광주항쟁의 진짜 주범인 미국을 변호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동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특히 미군문제 연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 내용만으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좀 더 책임 있는 판결이 나올 것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2. 변호한 미국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변호인으로서 책임의식은?

이번 시민법정은 광주학살에 개입한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시민의 힘으로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다. 왜냐면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이지만 미국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나의 변호를 보고 제대로 했다고 해줄지 의문이다.

3. 이번 시민법정의 의의는?

대법원이 지난 기간에 5.18의 당사자였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단죄를 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항쟁에 미국의 직접적 개입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시민법정은 정치적이고 법학적으로 미국을 유죄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4. 시민법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민족이 통일하는데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리였다. 또한 자주적인 통일 국가로 한민족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장이었다.

2002/05/19
전대기련 광전지부 5.18 공동기자단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

한민전은 최근년에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각의 비판처럼 ≪지역통일전선≫ 개념은 전위당의 견해와 전혀 무관한 개념, 일부에서 만들어낸 자의적 개념이 아닌 것이다. 한민전은 ≪구국의 소리 방송≫의 ≪변혁의 진로≫에서 ≪지역통일전선은 지역변혁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각당, 각파, 각계층 애국적 민주역량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 이번엔 분열된 나라에서의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된 나라에서의 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의 두 형태가 있는데요. 전국적 민족통일전선은 조국통일을 위해 나라의 전지역과 전 민족을 포괄한 애국역량의 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지역통일전선은 지역 변혁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각당 각파 각계층 애국적 민주역량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역통일전선 문제는 지역변혁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제반 민주주의개혁이 실시되고 각당 각파 각계층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되어 변혁운동을 진전시키고 조국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선 바로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동세력이 집권해서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위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주역량의 주권전취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으로 제기 됩니다. 이 두 형태의 통일전선은 다같이 조국통일에 공통하지만 상호 상대적인 독자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전국변혁의 승리를 위한 전략의 한 고리라면 지역통일전선의 상대적 독자성을 띤 지역변혁의 전략의 한 고리를 제기되고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합행태에 있어서 전자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국의 모든 애국역량의 민족적 연합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후자는 해당 지역사회의 변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층의 정치적 동맹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또한 그 기본강령에 있어서 전자는 전 민족적인 요구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며 후자는 해당지역 변혁의 당면과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이 전자는 ...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며 후자는 해당 지역 노동자계급의 당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 연합대상에 있어서도 전자는 진심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기만 하면 어느 계급 계층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연합하며 지어 집권상층과도 연합을 실현하지만 후자는 지역변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 계층과만 연합하며 적대계급과 집권층은 투쟁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조직형태에 있어서 전자는 정당 사회 단체의 연합이나 단일조직형태,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 형태도 취할 수 있으나 후자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합이나 단일조직형태는 취할 수 있어도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형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은 연방형식의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가장 철저히 실현될 수 있는데요. 이 통일전선 형태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연합이 아니라, 한 민족 국가간의 두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권연합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성의 통일전선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에는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적 이념, 민족문제 해결의 게재만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쌍방을 결합시키는 최대의 공약수로 단결과 협작의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통일전선 운동의 방법과 통일전선의 유형과 형태)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한민전의 견해를 알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한 맥락의 견해라는 점은 확신한다.

한민전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는 6.15공동선언 이전에 발표된 견해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없었다. 최성원동지는 자신의 두 논문(≪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2001.5),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2001.11.6))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다.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족민주전선 단독으로가 아니라 남측의 통일전선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전략과 그 운동력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이미 해설한 대로,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철거하게 될 것이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몫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이 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을 말한다. 이것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일부분이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이 구축되어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친미예속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높은 수위의 주장을 한다든지,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교정되어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북측 정치역량이 구축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 정권을 자기의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면에 배치하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혁명정세, 통일정세 앞에 전개되는 전선은 두 개의 전선입니다. 그 하나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에 따라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결집하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완결된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하지 못한 미완의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전선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과 전민족적 범위의 민족통일전선 두 개의 전선밖에 없습니다. ≫

≪지금 우리 남측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므로, 남측이라는 지역단위에서 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따르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은 마땅히 반미자주화를 강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반미자주화운동을 통하여 실현되어 가는 위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역통일전선도 반미자주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이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은, 반미자주화의 강령 대신에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형성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전선 안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하여 우리들이 설명하였던 내용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략과 전술, 조국통일운동의 전략과 전술과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반미자주화의 과업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데, 현 단계에서는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전선

에 포괄되는 역량의 범위는 민족민주운동의 범위로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이 당면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기치를 들고 나서되 차츰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술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동지는 ≪6.15의 호정세 속에서 반미자주화노선을 접고 부차적인 요구와 투쟁계기를 앞세울 대신, 반미자주화의 주공방향을 전면에 내걸고 모든 요구와 계기를 반미자주화로 집약시켜내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주장이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요구이지, 지역통일전선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이 민족자주의 과업을 명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선으로 형성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술적 조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문제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은 누가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거듭 밝히지만,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지, 남측 지역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선이 아닙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와 남측 지역혁명의 임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데 한호석소장의 최근 논문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2001년 10월 19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 지역통일전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민족통일전선의 두가지 성격과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개념은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결과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 앞에 높이 치켜든 민족자주의 위대한 기치는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의 반제자주화운동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킨 폭넓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력은 민족주체역량에서 나온다. 민족주체역량이란 남북해외에 존재하는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을 뜻한다.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이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하면 그것이 민족통일전선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한 것도 또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조국통일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반제자주화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다.≫

≪여기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관계문제다. 민족민주전선도 넓은 의미에서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분단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민족민주전선이자 곧 민족통일전선이다. 그러나 우리 한(조선)민족의 경우는 분단현실의 특수성 때문에 이 두 전선의 구분이 불가피하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시킨 전통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조선)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힘들다. 민족통일전선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고, 민족민주전선은 남(한국) 지역의 한정된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의 동력은 전체 한(조선)민족에게서 나오는 데 비해,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은 남(한국) 민중에게서 나온다.≫

≪민족통일전선의 투쟁대상은 한(조선)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음으로써 한(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있는 제국주의세력, 곧 아메리카 제국주의세력이다. 남(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은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민족통일전선의 주된 투쟁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과정에서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분리시키면서 제국주의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적 타격을 가하고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 요구된다. 집권세력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대하지 말고 그 세력권 안에서 개혁성과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구성부분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대응해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그 동력을 강화하고 주적에게 타격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6.15공동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칭송하고, 또한 그 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이 실현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준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친미예속적 집권세력의 일부를 민족통일전선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하여 형성되고 그 선언을 기치로 하여 한(조선)민족 전체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전진시키는 자기의 성격을 확대시키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6.15공동선언 이후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반미자주화를 기치로 한(조선)민족 전체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또 다른 성격, 반제적 성격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민족통일전선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 계급적 처지와 생활권의 차이를 떠나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는 모든 민족성원들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무한정한 투쟁동력을 공급받는다. 민족통일전선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시작하여 연방제 통일을 완수하는 전체 과정에서 부단히 심화 · 확대되어 간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심화 ·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전선의 반제적 성격도 심화 · 확대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은 곧 그 동일한 전선의 반제자주화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이며, 반제자주화운동이 전진되면 민족의 자주성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날로 강화 · 확대 · 발전하는 정세 속에서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고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북(조선)의 정부와 함께 기존의 민족통일기구를 더욱 강화 · 확대 · 발전시켜 짧은 기간 안에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운동대오가 지역통일전선론을 생소해 하고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선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위당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짧게 설명되었을 뿐이고 그 방송내용을 접한 운동가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대오는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통하여 전위당의 방송 내용이 아니면 이색조류로 단정부터 하고 보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민전의 지역통일전선은 지역변혁을 수행하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인데 반해 최성원동지가 설명한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기 때문이다.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원론적 설명이 미약한 조건에서 6.15공동선언 이후 심화된 지역통일전선론이 긴급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통일전선과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 간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통일전선에 대한 기성이론과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이론간의 관계가 중첩되어 있다.

이상의 당문헌과 주요논문들에 직간접적으로 설명된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로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민족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과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호석소장의 논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기준은 분단이다.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은 곧 민족민주전선이다. 반면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과 다르다.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며 민족민주전선은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둘째, 두 개의 강령을 가진 지역통일전선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서 전략단위이며 다른 하나는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서 전술단위이다. 전자는 한민전의 1999년 문헌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이며 후자는 최성원동지의 2001년 논문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이다. 한민전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가 6.15공동선언 이전에 나온 견해이며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원론적 견해임은 물론이다. 자주민주통일강령이 우리 운동의 전략적 노선인 만큼 그 강령을 가진 지역통일전선은 전략단위로 된다. 반면 최성원동지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는 6.15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견해이며 한민전의 원론적 견해를 내포하면서 새로운 정세변화에 맞게 심화시킨 견해이다. 6.15공동선언은 반미자주를 전면화하지 못한 과도적 강령으로서 이 강령을 가진 지역통일전선은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전략적 지역통일전선으로 전화발전하여야 할 전술단위로 된다.

그것은 세째, 지역통일전선은 두 개의 전선과 모두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두 개의 전선과 모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먼저 지역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간의 관계를 보면, 지역통일전선은 원론적으로 지역변혁을 수행하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통일전선이므로 민족민주전선과 동일하다. 이는 전위당의 문헌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이다. 다음 지역통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의 관계를 보면,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이다. 이는 최성원동지의 논문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40호)